

여고생들의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과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assion and Burnout on Academic Self-Efficacy for Dance Class of High School Girls

저자 (Authors)	박휴경, 원영신, 주형철 Park, Hyu-Kyoung, Won, Young-Shin, Joo, Hyug-Chul
출처 (Source)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1) , 2015.2, 485-496(12 pag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9(1) , 2015.2, 485-496(1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회체육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5292
APA Style	박휴경, 원영신, 주형철 (2015). 여고생들의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과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1), 485-496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여고생들의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과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 휴 경 · *원 영 신 (연세대학교) · 주 형 철 (카톨릭관동대학교)

I. 서 론

2012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10대의 운동 미참여율이 60.1%로 전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운동부족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유산소 활동과 근력 및 뼈 강화를 위한 신체활동을 중강도나 고강도로 매 60분 이상 주3회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간부족, 학업부담, 체육시설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체활동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대입이라는 학업부담 때문에 신체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이는 체력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신체활동의 참여가 권장된다. 학생들은 신체활동의 장소로 주변학교 개방 등 근거리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고 신체활동 미참여의 원인으로 구조적 제약(시간, 거리)을 꼽고 있기에(장성규, 2012), 학교 수업시간을 통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학생의 신체활동 미참여율이 남학생의 참여율 48.2%에 비해 79.9%로 현저히 높

게 나타나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체육에 대한 내적동기 및 수업 참여 적극성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석희, 유영규, 2008; 표정현, 표내숙, 2010). 또한 신체활동 참여 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등을 꼽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들은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경기형 종목보다 트레이닝형 종목을 좋아하고 댄스·요가·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윤경진, 2014; 장성규, 2012) 여학생을 위한 체육수업으로써 무용활동이 권장된다.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무용활동은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한 지성과의 결합으로 그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도와주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더불어 정서 순화, 창의력 개발,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켜준다(이경, 2007; 이현미, 1998). 또한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자아실현에 다각적 영향을 미치고, 교사와 교우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교생활과 자아개념, 사회적 개념, 정서적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에 동

* stella89@hanmail.net

기를 부여한다. 더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무용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더 유익한 영향을 받기(이세옥, 2006; 원세정, 2013; 이연수, 원세정, 2013) 때문에 여학생들의 무용활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동기유발을 꼽고 있는데(장성규, 2012),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내적동기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적동기유발의 필수적 요소인 열정(Eccles & Wigfield, 2002)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성향으로 정의된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스스로 의욕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환희를 느끼며 기쁘게 살아간다. 이러한 열정의 특성으로는 자발성, 공유성, 긍정성을 들 수 있다. 열정은 “개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강한 동기적 힘으로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내면화되는 조화열정과 그 활동에 대해 개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수 없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강박열정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된다(박중길, 김경원, 2013 재인용; 정병근, 최성보, 2013 재인용; Vallerand, et al, 2003)”. 즉, 조화열정은 활동에 유연성을 제공해 과제에 대해 집중하게 하고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촉진시키지만, 강박열정은 활동참여에 경직성을 제공해 집중력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 종속감을 느끼게 한다(유진, 정꽃님, 2008). 반면에 학생들은 신체활동 상황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동기저하 등의 부정적 경험으로 종종 탈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탈진이란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과도한 축적이며, 이로 인해 개인이 어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Harris & Harris, 1984; Koutedakis, 2000). 이러한 탈진 상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무력감, 지루함, 흥미상실로 인해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부

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김신애, 2013; 박중길, 김경원, 2013 재인용; 유정애, 2012; Brenner, 2007; Cresswell & Eklund, 2007; Gustafsson, Hassmen, Kentta, & Johnsson, 2008; Maslach & Leiter, 2008; Raedeke & Smith, 2001). 탈진은 심신소진, 성취결여, 가치상실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데(Raedeke & Smith, 2001), 심신소진의 상태에서는 긴장, 피로, 불안감 등으로 숙면하기가 어렵고, 주변인들에게 냉담하게 대하여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된다. 또한 성취감 결여 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가치상실의 경우 수행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한시완, 박용범, 2011). 때문에 과제 수행에 있어 탈진의 경험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열정과 탈진의 경험은 학생들의 학업상황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업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그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는 학습자에게 원동력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며, 학업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동기적, 인지적)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운동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다(Berger, Pargman & Weinberg,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Bandura & Schunk, 1981)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기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한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경, 2007 재인용; 조홍식, 정병근, 2011). 특히 청소년기는 학습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의 자아와 개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중요하다(이경, 2007). 이에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체육관련 선행연구들은 구봉진, 조건상(2010), 김범

(2012), 김종환(2011), 박보혜(2011), 방신웅, 이영석(2012), 이연숙(2007), 조흥식, 정병근(2011)에 의해 진행되었고, 무용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이경(2007)의 “무용수업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편으로 양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정과 탈진을 함께 다룬 연구는 “인문계 고교생의 체육수업에서의 자기결정성에 따른 학습열정과 탈진의 관계”를 다룬 김신애(2013)의 연구와 “청소년 운동선수의 열정과 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와 정체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다룬 박중길, 김경원(2013)의 연구, 무용분야에서는 손재현, 이성노(2013)의 “무용전공 학생의 이원론적 열정과 무용탈진의 관계”와 “여자고등학생이 인식하는 무용교사의 감성리더십이 열정, 탈진 그리고 무용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교육방향이 자기주도적인 경험의 학습을 중요시하고 있는(김종환, 2011) 현실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학생들이 체육과 같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이 오늘날 교육현실이다. 따라서 무용수업이 갖는 순기능적인 교육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동기적 힘을 갖게 하는 열정요인과 탈진요인이 여학생들이 무용수업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무용수업에 대한 탈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이며,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 소재 A여자외국어고등학교와 B여자고등학교(자율형사립)의 여고생들이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무용수업에 참여하였다. 무용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요가, 라인댄스, 포크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요가수업의 경우 체육교사보다는 신체의 사용에 좀 더 자유로운 무용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무용수업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교사의 제량에 따라 학기의 전반부와 댄스수업의 워밍업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11월에 직접 학교를 6회 방문하여 수업시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고, 총 5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확인 작업과 데이터 기입 후 오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두 차례 걸쳐 시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불성실하게 응답한 69부를 제외하고 총 4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는 1학년이 총 141명(31.7%), 2학년이 290명(63.3%)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도구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rion)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다. 사용된 설문지는 열정 14문항, 탈진 10문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13문항 및 학년을 묻는 1문항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항목들은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 열정척도

열정 척도는 Vallerand et al(2003)의 연구를 기초로 유진과 정꽃님(2008)이 연구한 것을 김덕진(2013)이 수정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강박열정 7문항과 조화열정 7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열정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분해(principle axis factoring), 요인회전방식은 직각회전방식(orthogonal rotation) 중 Quartima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요인 14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이고 누적분산이 74.511%를 설명하고 있고,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결과 강박열정의 경우 .955 그리고 조화열정 .949로 높게 나타나 최종 2요인 14문항을 <표 1>과 같이 확정하였다.

2) 탈진척도

탈진 척도는 최마리, 박상혁, 성창훈(2012)이 Rae-deke과 Smith(200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만든 측정도

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심신소진 4문항과 성취결여 3문항 그리고 가치상실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탈진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3요인 10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이고 누적분산이 70.804%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결과 심신소진의 경우 .922, 성취결여는 .840 그리고 가치상실은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최종 3요인 10문항을 <표 2>와 같이 확정하였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 박인영(2001)이 표준화한 척도를 방신웅, 이영석(2012)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신감 5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4문항, 자기조절효능감 4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이고 누적분산이 64.574%이며,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결과 자신감의 경우 .882, 과제난이도 선호의 경우 .885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감의 경우 .858로 매우

표 1. 열정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문항	강박열정	조화열정	신뢰도
나는 정서적으로 무용수업에 의존도가 높다.	.873	.245	.955
나는 무용수업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	.870	.267	
나는 무용수업에 거의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	.855	.254	
나는 무용수업에 대한 충동이 강해서 운동을 멈출 수 없다.	.849	.279	
무용수업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791	.279	
무용수업에 따라 내 기분상태가 좌우된다.	.790	.255	
나는 무용수업 없이 살 수 없다.	.740	.330	
무용수업은 나의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242	.808	.949
무용수업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준다.	.365	.802	
나의 삶에서 무용수업은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352	.775	
무용수업에서 얻는 새로운 것들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405	.775	
나에게 무용수업은 하나의 열정이며, 나는 그 열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28	.765	
무용수업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 준다.	.427	.764	
나는 무용수업을 아주 열심히 한다.	.271	.744	
고유값	5.687	4.745	
분산%	40.622	33.890	
누적%	40.622	74.511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51, Bartlett의 구형성검정=6257.583, df=91.000, p=.001

표 2. 탈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문항	심신소진	성취결여	가치상실	신뢰도
나는 무용수업을 할 때 마다 기진맥진 해진다.	.899	.164	.115	.922
나는 무용수업을 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845	.227	.153	
나는 무용수업을 할 때마다 녹초가 된다.	.837	.048	.127	
나는 무용수업을 할 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소진된다.	.811	.079	.086	
무용수업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152	.847	.178	.840
무용수업 때문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	.161	.717	.153	
무용수업을 하면서 목표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다.	.189	.698	.305	
예전만큼 무용수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	.197	.282	.856	.862
무용수업을 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210	.174	.749	
현재 내 능력으로 무용수업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194	.399	.646	
고유값	3.087	2.075	1.919	
분산%	30.869	20.746	19.188	
누적%	1.919	19.188	70.804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55, Bartlett의 구형성검정=2776.767, df=45.000, p=.001

표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문항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신뢰도
수업시간에 연습 할 때 실수(실패)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819	.126	.007	.882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시범보이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813	.103	.070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813	.100	.017	
연습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제대로 연습하지 못한다.*	.794	.063	.028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01	.096	.186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친구들이 성공 못한 기술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094	.838	.099	.88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신체적으로 도전적인 무용이 더 재미있다.	.130	.837	.066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기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57	.831	.096	
쉬운 기술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이 더 좋다.	.149	.797	.04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067	.038	.879	.85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054	.051	.854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093	.082	.717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079	.091	.659	
고유값	3.079	2.798	2.518	
분산%	23.687	21.521	19.366	
누적%	23.687	45.208	64.574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34, Bartlett의 구형성검정=3219.807, df=78.000, p=.001 역코딩 문항*

높게 나타나 최종 14문항을 <표 3>과 같이 확정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16.0을 사용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Ⅲ. 결 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4>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변인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열정의 하위요인 중 강박열정의 경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심신소진, 가치상실, 성취결여에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화열정의 경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심신소진, 가치상실, 성취결여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탈진의 하위요인인 심신소진의 경우 가치상실과 성취결여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강박열정, 조화열정,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가치상실의 경우 성취결여와 심신소진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강박열정, 조화열정,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성취결여의 경우 강박열정과 조화열정만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심신소진, 가치상실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열정과 탈진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탈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역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열정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열정의 모든 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2 값은 .147로 열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총 변화량 14.7%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F값은 36.942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박열정의 회귀계수는 .102이고 t값은 2.978로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조화열정의 회귀계수는 .146이고 t값은 4.238로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공차한계 값인 tolerance의 값의 경우 .584수준으로 1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표 5. 열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값	공차한계	결과
(상수)	2.663	.081		32.781***		
강박열정	.102	.034	.174	2.978**	.584	지지
조화열정	.146	.034	.248	4.238***	.584	지지

$R^2=.147$, $F_{값}=36.942$, ** $p<.01$, *** $p<.001$

표 4.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1. 강박열정	1							
2. 조화열정	.645***	1						
3. 심신소진	-.185***	-.213***	1					
4. 가치상실	-.448***	-.496***	.378***	1				
5. 성취결여	-.271***	-.367***	.337***	.529***	1			
6. 자신감	.425***	.436***	-.301***	-.422***	-.395***	1		
7. 자기조절효능감	.106*	.119*	-.045	-.071	-.125**	.176***	1	
8. 과제난이도선호	.137**	.164***	-.061	-.236***	-.288***	.277***	.161***	1

* $p<.05$, ** $p<.01$, *** $p<.001$

다중공산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표 6>이 설명하고 있듯이, 탈진의 가치상실과 성취결여 요인만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2 값은 .202로 열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총 변화량 20.2%를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36.008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소진의 회귀계수는 -.018이고 t 값은 -.610으로 유의 수준인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가치상실의 회귀계수는 -.120이고 t 값은 -4.010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성취결여의 회귀계수는 -.187이고 t 값은 -5.54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차한계 값인 tolerance의 값의 경우 .675에서 .831수준으로 1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다중공산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값	공차한계	결과
(상수)	4.119	.087		47.591***		
심신소진	-.018	.029	-.029	-.610	.831	기각
가치상실	-.120	.030	-.211	-4.010***	.675	지지
성취결여	-.187	.034	-.287	-5.547***	.699	지지

$R^2=.202$, F 값=36.008, ***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여고생들의 열정과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열정의 두 하위요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여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규범 속에서 학교체육에서 소외되고 있다(윤경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활동에 있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과제수행 성취도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실기능력이 더 높기에(조형준, 2011),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석(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데,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용전공생들은 좋아하는 무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무용에 몰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신애(2013)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인문계 고교생들의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두 변인 모두 기본적 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병근·최성보(2013)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모두 중고교생의 체육수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모두 수업태도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학교수업으로써 좋은 수행점수를 받기 위해 집중하여 무용활동을 하다보면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져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정병근, 최성보, 2013).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과제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화열정과 달리 활동에 경직성을 제공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강박열정(김덕진, 양명환, 2011; Vallerand et al, 2003)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용활동이 어느 스포츠처럼 승패를 경험하는 경쟁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유진, 정꽃님, 2008). 또한 강박열정이 학습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유용한 요인이기에 무용을 수행할 때 고도의 집중력으로 활동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무용수업에 몰입하게 하여 과제 난이도와 전문적 숙련성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김신애, 2013; 이정금, 2009; 이화석, 2013). 이렇듯 때로는 통제되지 않은 조화열정 보다 활동에 통제되어 어쩔 수 없이 행하게 하

는 강박열정이 활동의 선택과 지속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Vallerand, R. J., Rousseau, f. L., Grouzel, F. M. E., Dumais, A., Grenier, S., & Blanchard, C. M. 2007b). 즉, 과제수행에 있어 부정적 심리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강박열정을 경험하게 하여 수행의 지속을 돕는 것도 학업수행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강박열정은 집중도, 자신감, 성취감, 참여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수업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김덕진, 2013; 정병근, 최성보, 2013). 이렇게 강박열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도 같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다각도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나친 강박열정의 경험은 수행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절한 강박열정의 경험으로 수행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 한편 조화열정은 본 연구 뿐 아니라 국내선행연구에서 대상(연령, 전공과 비전공 등)과 활동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속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수행자들이 조화열정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정서발생을 유도하여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겠다.

둘째, 탈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세요인 중 가치상실, 성취결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탈진의 상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무력감 등을 유발하여 수행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과 함께 성취감의 저하, 학습부진 등 일상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한시완, 박용범, 2011). 특히 무용수행에 있어 탈진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하기 때문에 탈진의 경험을 낮추고 예방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천(2010)은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은 선수가 성취감 저하와 같은 탈진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라는 막연한 목표 역시 성취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이

석준, 2001). 따라서 지도자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무용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 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고 각 개인의 수준을 생각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용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신체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개인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더불어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며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무용수업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옥경, 1997; 김해성, 2012). 한편 탈진의 하위요인 중 심신소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맥락에서의 탈진은 과도한 무용수행으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설명되는데(한진욱, 권형일, 한시완, 2010), 본 연구 대상인 A와 B 여고의 무용수업은 주 1회 50분이었지만 실제 수행 시간은 40-45분 정도였기에 여고생들이 무용수업에 대한 심신소진의 경험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학교체육에서 여학생들은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는 혼성수업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팀의 패배와 그로 인한 동료관계의 소원 및 새로운 종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무용수업은 체육수업과 달리 비경쟁적이고 기록경기로 순위를 정하거나 여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고생들의 심리적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체육수업에서 여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수행평가를 더 걱정을 하는데(이병준, 김동환, 2012; 전용진, 2006), 무용수업은 단순 신체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 타인과의 상호작용, 움직임과 여러 감각들의 조화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것 등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부담 없이 무용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 심신소진의 경험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용수업은 체육수업에 비해 여학생들이 두려움을 갖는 요소들이 적

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무용수업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므로, 대인관계와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을 잘 영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원세정, 2013; 이경, 2007; 이연수, 원세정, 2013). 그러나 무용수업에서 탈진의 경험은 학생들의 무용활동 지속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화례, 이용건, 주형철, 2013) 무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탈진의 경험을 낮추고 참여를 독려하여 학업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열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탈진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열정을 높이고 탈진(가치상실, 성취결여)의 경험을 낮추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 정서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무용수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수업참여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육수업내용이나 환경적 요인(시설, 프로그램)보다는 교사지도(김정구, 2010)인 것을 볼 때 지도자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지도자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무용 장르의 선별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열정을 높이고 탈진을 낮추는 요소와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인 두 학교의 무용수업은 주1회 수업으로 체력육성을 주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용교육은 신체발달 뿐 아니라 창의력, 사회성 발달, 예술적 감각의 표현과 체험, 지적·정서적 발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무용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 제공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들이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과 탈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는데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정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도의 모든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진의 성취결여, 가치상실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도의 모든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신소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여고생들의 무용수업에 대한 열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램 선택부터 시설, 전문지도자, 지도방법,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무용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진의 성취결여와 가치상실의 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감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도 무용수업을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학업이나 생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열정을 가지고 무용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래본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무용수업은 체육교과 안에서 주1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무용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수업정규교과목으로 인정받아 무용수업이 활성화되기 기대하며,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무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고 남녀구분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무용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해 본다.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어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나아가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또는 남학생과 여학생 등으로 대상과 영역 및 집단 등에 따른 차이분석이나 다중집단분석 등을 실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대상을 분리한 연구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무용수업의 열정과 탈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열정과 탈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질적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뿐 아니라 무용 교수자의 열정과 탈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도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 구봉진, 조건상(2010). 협동학습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체육수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4(4), 699-714.
- 궁천(2013). 중국 엘리트 수영 선수들의 정서지능, 코칭-선수관계 지각, 탈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덕진(2013). 체육수업에서 중학생의 기본적 심리욕구만족과 운동열정 및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111-125.
- 김덕진, 양명환(2011).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열정, 주관적 웰빙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1(2), 27-41.
- 김범(2012).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참여태도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865-877.
- 김석희, 유영규(2008). 경기지역 고등학교의 체육수업 만족도 조사. *한국체육학회지*, 47(3), 165-179.
- 김신애(2013). 인문계 고교생의 체육수업에서의 자기결정성에 따른 학습열정과 탈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옥경(1997). 儒敎 經典上의 音樂理論 小考 : Focusing on 「AK-KI」樂記를 中心으로. *대한무용학회*, 20, 7-22.
- 김정구(2010). 체육수업 요인별 적용이 여학생들의 수업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2), 49-64.
- 김중환(2011). 중학생의 자기결정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체육수업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5), 173-183.
- 김해성(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등학교 무용교육 개선방안. *한국무용연구*, 30(1), 59-94.
- 김화례, 이용건, 주형철(2013). 여자고등학생이 인식하는 무용교사의 감성리더십이 열정, 탈진 그리고 무용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72(2), 21-41.
-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박보혜(2011). 요가수련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종길, 김경원(2013). 청소년 운동선수의 열정과 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와 정체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59-79.
- 방신웅, 이영석(20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대생들의 체육실기 수업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2(2), 145-156.
- 손재현, 이성노(2013). 무용전공 학생의 이원론적 열정과 무용탈진의 관계 : 자기결정성이론 관점. *우리춤과 과학기술*, 23, 67-93.
- 원세정(2013). 중학생의 학교 무용수업 참여경험이 자심감과 사회성 및 자아실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3), 47-65.
- 유정애(2012). 학생선수의 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방향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1(3), 157-169.
- 유진, 정꽃님(2008). 무용열정의 이원론적 모형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63-175.
- 윤경진(2014). 여고생의 체육수업 내용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수준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2007). 무용수업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준, 김동환(2012). 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두려움 불안 경험의 맥락과 교육적 의미. *중등교육연구*, 60(3), 781-803.
- 이석준(2001). 남자중학생 체육성취경향이 내재 동기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옥(2006). 창작무용수업이 여자 고등학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4(2), 55-62.
- 이연수, 원세정(2013). 중학생의 학교무용수업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

- 학회지, 30(2), 1-18.
- 이연숙(2007). 스포츠교육모형을 통한 체육수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학습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1(1), 83-94.
- 이정금(2009). 무용몰입 경험에 관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현미(1998). 중학교 무용교육의 실태분석과 운영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화석(2013).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열정, 공연자신감, 무용몰입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967-999.
- 장성규(2012). 「서울학생 7560+운동」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전용진(2006). 중학생이 체육수업에 체형하는 정서경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6), 119-137.
- 정병근, 최정보(2013). 중·고등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열정이 정서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969-984.
- 조형준(2011). 창작무용수업을 통한 성취도가 체육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홍식, 정병근(2011).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도움요청 행동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2), 151-163.
- 최마리, 박상혁, 성창훈(2012). 코치-선수 부합과 심리육구만족 및 운동탈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2), 203-213.
- 표종현, 표내숙(2010). 중학생의 체육에 대한 내적동기가 체육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26, 39-47.
- 한시완, 박용범(2011). 무용탈진의 구조 분석 : ABQ 타당화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843-853.
- 한진옥, 권형일, 한시완(2010). 여자 무용수들의 외적동기와 자아존중감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65, 311-326.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206.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01-607.
- Berger, B. G., & Weinberg, R. S.(2002). *Foundation of exercise psychology*. Morgan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Brenner, J. S. (2007). Overuse injuries, overtraining, and burnout in child and adolescent athletes. *Paetrics*, 119, 1242-1245.
- Cresswell, S. L., & Eklund, R. C.(2007). Athlete burnout: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The sports Psychologist*, 21, 1-20.
- Ecceles, J. S., & Wigfield, A.(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s Psychology*, 53, 109-132.
- Gustafsson, H., Hassmen, P., Kentta, G., & Johnsson, M. (2008). A qualitative analysis of burnout in elite Swedish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800-816.
- Harris, D. V., & Harris, B. L. (1984). *The athlete's guide to sport psychology : Mental skills for physical people*. New York: Leisure Press.
- Koutedakis, Y. (2000). Burout in Dance : The physiological Viewpoint.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4, 122-127.
- Maslach, C. & Leiter, M. P.(2008). Early predictors of job burout and engagement.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498-512.
- Raedeke, T. D., & Smith, A. L., (2001).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athlete burnout measu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3, 281-306.
-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 Ratelle, C.,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2003). Lespassions de l'ame :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 Vallerand, R. J., Rousseau, f. L., Grouzel, F. M. E., Dumais, A., Grenier, S., & Blanchard, C. M. (2007b) Passion in sport: A look at determinants and affective experienc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 454-478.

ABSTRACT

**Effect of Passion and Burnout on Academic Self-Efficacy
for Dance Class of High School Girls**

Park, Hyu-Kyoung · Won, Young-Shin · Joo, Hyu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passion and burnout of dance class for high school girls on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ly, total 431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ith participants who are students from dance class in A girl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B girls high school in Seou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orrelation,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reliability and path through SPSS 16.0 Program and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harmonic passion and obsessive passion as subsidiary factors of passion were identified as it has positive effects on every subsidiary fa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such as self-confid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At second, lack of achievement factor and value loss factor of burnout were identified as it has negative effects on every subsidiary fa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such as self-confid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but mental/physical exhaustion was appeared as not affected on those factors.

Key Words : passion, burnout, academic self-efficacy, dance class for high school girls

접 수 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5. 2. 24